

완도군-완도우체국-영암우편집중국

농수산물 소비 촉진 위한 업무협약체결

명절 특수기 노화·보길권 택배 차량 확보 등 운송 체계 개선 협력

완도군은 5월 8일 완도우체국, 영암우편집중국과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택배 운송 체계 개선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신우철 완도군수, 이종희 완도우체국장, 김갑용 영암우편집중국장 등이 참석했다.

완도군과 우체국은 업무 협약을 통해 명절 특수기 노화, 보길권 주민들이 우체국택배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택배 차량 최대 확보 및 배차, 우체국 물류시설 개선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완도군 전복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노화·보길권은 전복 양식 생산뿐만 아니라 대도시권과의 직거래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어업인이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설과 추석 명절에 전복이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으나 도서라는 특성



상 택배 발송 시간제한으로 발송에 한계가 있었다.

택배 물량이 폭주할 때에는 우체국 택배 접수 마감 시간과 관계없이 조기 마감되어 노화·보길 주민들은 소비자

와의 신뢰를 지키고자 완도읍이나 해남까지 나가서 택배를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노화우체국 택배 집하장과 진출입로가 협소하여 명절 성수기에는

교통 체증까지 유발돼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김갑용 영암우편집중국장은 “우리 집중국은 완도, 목포 등 8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는데, 명절 특별 소통 기간(10일간) 택배 거래량 약 55만개 중 26만 개가 완도 물량이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택배 차량 배차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택배 운송 체계 개선을 통해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더불어 우리 군 농수산물 소비 촉진으로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신 것에 대해 우체국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체국 택배는 운송 전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 고객 만족도 택배 서비스 부문 12년 연속 1위에 빛나고 있다.

완도=이민혁기자

해남군 국도77호선 도로 연결 “회원권역 활성화 선제 대응”

국도77호선 해남 화원~신안 압해간 연결도로 건설공사가 오는 8월 착공 예정인 가운데 해남군은 회원권역 활성화에 선제적 대응하고자 부서 간 준비사항을 사전 점검하는 통합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공사는 해남군 화원면 매월리~신안군 압해도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13.49km, 사업비 5,005억원이 투입,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중 해남구간은 5.95km, 왕복2차로(4차선)으로 계획되었다.

주요사업으로 해남 화원~목포 달리도까지 2.73km를 해저터널로 연결하고, 휴게시설과 전망대 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해남, 신안, 목포 3개 시군을 해상교량과 해저터널로 잇게 되면서 서해안고속도로, 무안국제공항고속도로와 연계해 주민생활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해남아시아노 관광단지 및 솔라시도관광래저기업도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어 관광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동취재본부



강진군, 체험운영공동체 ‘닐다’ 탄생

신활력플러스사업 예비액션그룹 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강진군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예비액션그룹으로 참여하고 있는 체험운영공동체 ‘닐다’의 협동조합 창립총회가 지난 4월 30일 개최되었다.

창립총회에는 발기인과 ‘닐다’회원, 강진군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관계자 등 약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선출, 정관 및 사업계획 확정, 설립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졌다.

체험운영공동체 ‘닐다’는 ‘(사)어린이도서관’ 강진지회 소속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회는 지난 20년 동안 아동과 청소년이 읽을 책을 공부하며 ‘책문화큰잔치’, ‘그림책 전시회’, ‘놀이놀이 책이랑 놀자’, ‘동화동무씨동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해 왔으며, 군의 농림수산식품부 신활력플러스사업 선정시

적은 인정받아 예비액션그룹으로 동참해 왔다.

‘닐다’는 단순 연구회로의 활동에만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지역활동에 동참해 달라는 안팎의 요구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조합은 향후 신활력플러스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예술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통해 지역 밀착형 문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교육서비스, 문화·예술 컨설팅 및 학술연구, 지역축제 및 전시기획 운영 사업 등을 통해 지역민들과도 함께 할 예정이다.

조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한미란 이사장은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과 함께 우리지역을 위한 사업들을 열심히 하는 협동조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진도군, 과학영농실증시험 추진

5억원 예산 투입 영농현장 애로사항 해결...신농업기술 본격 보급

진도군이 5억원의 예산을 투입, 농업생명기술 보급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과학영농실증시험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4일 진도군에 따르면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조성사업을 추진, 영농 현장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신농업기술 보급을 위해 나섰다. 시험포는 농업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새로운 농업 기술 보급을 위한 역할도 수행한다. 또 진도군 특화품목 발굴과 농업인 현장 교육을 비롯 유치원, 초·중학생 진로체험과 견학장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구기자 특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 품종 개발 보급과 시설재배 현장기술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노동력 절감을 위해 기계수확이 쉬운 일시 다수확 신 품종 개발을 추진 중이다.

진도군 기후에 맞는 유자, 키위 시설 재배를 비롯 아열대 과수인 파인애플, 레드향, 바나나, 레몬 등 다양한 유망 과수 시설재배 시험포장을 신규로 조성했다. 연중 생산 공급이 가능한 미

니단호박, 하미멜론, 포도(샤인머스켓) 등 소비 트렌드에 맞는 소과류 원예·과수 실증 시험포도 운영하고 있다.

겨울 출하에 한정된 진도 대파의 연중 생산과 고품질 생산을 위한 시설재배 포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국비 2억원을 확보해 ‘스마트 농업 테스트 베드 교육장’을 신축하고 스마트 농업의 신속한 현장 확산과 농업인의 과학영농기술 체험 현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군은 신소득 작목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농가소득 증대, 선진농업 육성 기술보급 등 과학영농시설을 집적화해 농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험포 단지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학영농 시험포를 농업인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는 농업인들에게 작목별, 품종별 재배 기술 습득과 농가 수준별로 체계적인 실습교육을 지원해 농가의 역량을 강화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장흥군 ‘금연 로고라이트’ 일석이조

금연 환경 조성·방거리 안전

장흥군은 지난 3일 금연 및 건강생활 실천 홍보 극대화를 위해 심야 시간 어둡고 간접흡연에 취약한 역불종합장시 역, 장흥시의 버스터미널 사거리, 동방불패 앞 사거리 3개 지역에 로고라이트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장흥군은 지난해에도 정남신산업고등학교 외 1개소에 금연 홍보 로고라이트 2개를 설치해 방거리를 밝게 하면서 범죄도 예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로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로고라이트는 LED 조명으로 홍보 문구를 넣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벽이나 바닥에 투사시키는 장치로, 기존 금연 표지판과 달리 어두운 환경에서도 메시지 전달 효과가 뛰어나다.

올해는 금연뿐만 아니라 식습관 개선, 걷기 등 건강생활 실천 내용 및 ‘흥미진진 장흥군’ 홍보까지 표



출하여 간접흡연의 피해가 심한 지역에서의 메시지 전달은 물론, 늦은 시간 어두운 방거리를 걷는 주민들에게 안전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준수 장흥군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금연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금연 로고라이트를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장소 금연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